

2021

젊은건축가상

전시

조윤희, 구보건축

강우현 강영진,

아키후드

이세웅 최연웅,

아파랏체

2021 젊은건축가상 전시

2021.12.21-30, 10:00-19:00

문화역서울 284 RTO

전시 오프닝 및 도록 발간 기념회

2021.12.21 화요일, 17:00-19:00

문화역서울 284 RTO

2021 Young Architect Award Exhibition

21-30 December 2021, 10:00-19:00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Exhibition Opening Reception &
Publication Ceremony

Tuesday, 21 December 17:00-19:00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젊은건축가상

젊은건축가상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수상 제도로 한국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건축가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을 통해 그들의 건축적
세계를 피력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젊은건축가상은 더 나아가 한국건축이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와 교류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구보건축



궁정동 사회주택 청운광산
Collective Mine

위치: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용도: 공유주택+카페
완공: 2019년
사진: 텍스처 온 텍스처

조윤희

궁정동 사회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소셜스탠다드와 협업해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사회주택의 첫 번째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프로젝트 팀은 1인 가구가 지배적인 밀레니얼 세대의 변화에 주목해 그들에게 소구하는 주거 유형 실험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최근의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대해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주택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혼자 거주할 때는 누릴 수 없는 다양한 편의 공간들을 함께 살면서 나누어 공유하는 '따로 또 함께 사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1층과 지하1층에 이 공동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 카페가 계획되며, 나머지 3개 층에는 총 11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이 자리하게 된다. 각 층마다 4명이 거주하고, 이들을 위한 공유 공간들이 마련되고, 최상층에는 높은 천장고를 지니는 공유 주방이 자리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시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CLT 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혼합하여 디자인되어 나무로 마감된 건강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봇대집
The Pole House

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카페, 갤러리)
완공: 2020년
사진: 텍스처 온 텍스처

이 프로젝트는 서계동의 재생지역으로 오랜기간 관리 없이 방치된 2층 건물을 레노베이션하여 오래된 동네의 기존 매력을 끌어내면서도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일상을 재생시키는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이 작은 건물을 전봇대집이라고 명명하고, 자칫 동네 경관의 방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전봇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이를 우리 건물의 일부분으로 읽기 위해 노력했다.

골목과 단절되어 폐쇄적인 모습을 띠던 저층부의 벽들은 주요 구조부만 남기고 최대한 덜어내 가볍고 투명한 공간을 길 위에 드러내고자 했다. 기둥에 오랜 세월 붙어 있던 불필요한 장식물들을 떼어낸 뒤 조적조 기둥의 거친 면을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노출하고 조명을 더해 그 텍스처가 건물 디자인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 유리벽이 감싸고 있는 거친 기둥과 골목길 사이에 새로운 시간이 더해짐을 표현하기 위해 흰색으로 도장한 철판으로 긴 화단을 만들어 조경이 부족한 골목길에 녹색 공간을 더했다

방 네 칸과 주방 겸 거실을 지닌 주택이 자리하던 2층 공간을 사무실로 개조하면서 기존 집이 지닌 기억을 새로운 장소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방을 나누는 벽체의 스킨을 걷어내고 조적 벽을 드러내 기존의 방 구획이 자연스럽게 사무실의 워크스테이션들이 차지하는 영역으로 사용되도록 했고,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던 벽체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조적벽과 슬래브가 만나는 상부를 덜어내 빛과 소리가 흘러나오게 했다. 건물이 축조된 과거의 내러티브를 공간화하면서 동시에 벽들로 인해 공간이 잘게 나뉘어 협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택이었다. 창이 부족해 어둡던 실내를 개선하기 위해 계단실 코어 벽 상부에 천창을 내 빛이 부드럽게 사무 공간에 흐르도록 했다.

조윤희는 홍지학과 함께 2015년부터
구보건축을 설립하여 도시건축연구
및 건축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학교와 MIT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의 이로재와 미국 보스턴의
Höweler+Yoon Architecture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왔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시

만들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설계스튜디오를
운영했으며, 2016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2020 목조건축대상 특별상과
2021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했다.
www.gubowork.com

아키후드



보리
Voree

위치: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완공: 2020년
사진: 박수환

강우현 강영진

보리는 영광의 백수해안도로라는 서해안의 해안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지방도로의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카페이다. 이곳에 설계를 위해 처음 방문했을 때 도로 밑의 야트막한 경사지는 하얀 눈에 덮여 있었고, 새 봄에 있을 보리 파종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해안도로 변에 서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흔히 알던 서해안의 해수욕장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의뢰인과 함께 방문한 주변의 제일 장사가 잘되는 카페에 방문했는데 그곳은 3개 층의 높이에 바다가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그 건물이 높음에 매우 부러움을 느꼈는데, 이유인즉슨 이 건물이 허가받은 이후로는 해안도로에서 바다의 조망을 건물이 가리지 못한다는 규정이 생겨 단층 건물밖에 못짓는다 는 것이었다.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건물을 나지막하게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을 얻은 기분이었다. 안그래도 현장에서 저 아름다운 바다를 가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 이유로 건물은 도로에 최대한 가까우면서 낮은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고, 대지의 전면에는 매우 넓은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이곳을 넓은 정원으로 꾸밀 예정이라는 의뢰인분들의 생각을 말리고 싶었다. 이 정도 면적의 조경이라면 비용도 엄청날테고, 관리도 쉽지 않을 거라, 우리는 현재 이 곳에서 짓고 있는 보리농사를 계속하는 것을 제안드렸다. 보리는 영광군의 특산품 중 하나였고, 봄의 청보리밭은 그 어떤 정원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때 최대한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었다. 대신에 보리밭 주변으로 시골길 같은 분위기의 산책길과 최소한의 조경만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곳이 단순히 카페라기보다는 보리밭과 바다를 배경으로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했기에 자연스럽게 전면에 긴 창을 배치했고, 대지의 경사를 실내로 끌어들이와 두 개의 바닥 레벨로 나누었다. 특이한 각도로 각이 진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를 기성품에서 찾기보다는 새롭게 디자인해 설치함으로써 공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암동 두집
Doojip

위치: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용도: 다가구주택
완공: 2019년
사진: 노경

‘부암동 두집’은 한 가족이면서 두 가족이 사는, 교차와 분리가 공존하는 집이다. 10여 년 만에 함께 살기로 결심한 부모와 아들 부부가 지낼 집의 설계를 위해 처음 방문한 대지의 인상은 ‘높다’였다. 인왕산 중턱에 있어 전체적으로 고도가 높고 경사가 심하며, 대지 초입에는 5m 높이의 축대가 조성되어 있었다. 마을의 밀도가 높은 탓에 공사 여건도 좋지 않고 지적과 현황도 맞지 않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전망은 다른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정도로 근사했다. 축대 위에 서면 주변 마을의 풍경과 북악산, 북한산, 인왕산을 모두 볼 수 있었다. 주택의 배치는 자연히 이 경치들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또한 두 가족 모두 처음으로 아파트를 떠나 단독주택에 살게 되어 정원과 조망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화두가 남아 있었다. 이 집은 언뜻 보면 단독주택 같으나 두 가족이 함께 살 집이라 서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완전히 분리된 듯한 인상을 주기는 싫은, ‘아주 애매한 경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 건물 안에서 두 세대를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1층 세대에는 지상 정원을, 2층 세대에는 근사한 전망을 몰아주기로 한 것이다. 1층은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부모가, 2층은 손님 방문이 잦아 간단한 파티 공간이 필요한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으면서도 약간의 틈새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두 가족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한 집에 녹여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래도 오래되고 빛 바랜 장소를 열심히 다듬고 가꿔서 그 빛을 되살려 주는 작업은 언제나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인 듯하다.

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는 강우현, 강영진이 2013년 설립해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틈과 경계’, ‘친숙한 낯설음’ 등을 관심있게 다루고 있으며, 대지와 건축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탐구해나가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Voree’, ‘서림연가’, ‘숨 어반’, ‘부암동 두집’ 등이 있다. 젊은건축가상과 신진건축사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과 서울시 건축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강우현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조병수건축연구소에서 다년간 실무를 익혔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건국대학교 건축과에서 설계를 가르쳤고, 2013년부터 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서 활동 중이다. 강영진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조병수건축연구소에서 설계 경험을 쌓았다.
www.archihood.com

아파라트체



차리숙소
Peridot House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차리
용도: 단독주택
완공: 2017년
사진: 임준영

이세웅 최연웅

의뢰인은 자신이 숲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부모와 유치원생에게 숲 근처 숙박을 제공할 장소를 원한다고 했다.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조금 더 상업적인 목적의 숙박시설로 변했지만, 요구 사항은 간단했는데, 비슷한 조건을 갖춘 4개의 방과 주방 및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다.

우리는 그에 더해 넉넉한 크기의 지붕 덮인 테라스 공간을 추가했다. 별이 좋은 남쪽에 테라스와 공용공간을 두고 침실은 자연스레 북쪽을 향했다. 건물의 배치는 정남향이었고 실의 배치 또한 그게 전부였다. 건물은 직육면체 위에 가설물처럼 보이는 경사지붕을 얹은 단순한 형태였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이런 단순함은 오히려 재료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공간적 풍요로움을 주었다. 그리고 단순함이 만들어내는 복잡성은 요란한 형태가 만드는 그것보다 더 흥미로웠다. 우리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주변 자연경관의 웅장함을 고려해, 테라스의 과장된(건물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개구부가 이 건물의 파사드가 되었다. 외장재는 노출콘크리트, 거친 마감의 스테코, 아연도 각파이프, 일반합판이 사용되었다. 저렴하고 일상적이며 주변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물론 농촌에서는 노출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불력의 형태로 자주 보이지만) 평범한 재료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테라스 벽면에는 인도산 그린마블을 붙혔는데, 바깥으로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테라스의 바닥에는 800×800mm 규격의 고흥석(흔치 않은 규격이라고 알고 있다)을 깔아 사치스러움을 더했다.



연희공단(貢織)
Satin in Yeonhui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용도: 단독주택
완공: 2018년
사진: 진효숙

여는 프로젝트나 그렇겠지만 연희동 단독주택은 더욱 더 주어진 조건들에 대한 고민에서 중요한 방향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대지는 공동공원 산자락의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웅벽과 뒷집에 가려 별이 좋지 않았지만 북쪽으로 산을 내려다보며, 서울에서 보기 드문 조망을 가진 곳이었다. 이 집에서 1층의 마당— 유일한 외부공간이기도 했다—과 2층의 조망은 전제조건처럼 주어졌다. 연희동은 지가(地價)가 높은 편이어서 건물을 복합용으로 구성하고 건물 일부—연희공단의 경우에는 지하의 근린생활시설과 임대용 주거—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했다. 집의 형태는 수익성, 마당, 조망을 따랐다. 마을길이 끼이는 지점에 위치한 탓에 마을 사람들이 길을 오르내릴 때 자주 마주보게 되어 건물의 용도가 개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면은 꽤 공공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 잠시 머물 수 있는 도시적 형태라고 생각해, 집은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첨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더해 파사드에서는 창을 사람의 얼굴을 연상시키게 배치했다. 행인 중 누군가는 이 집을 보고 모아이 섬의 거석상을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건물의 외피는 열은 자색과 짙은 갈색이 섞인 환원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종류의 벽돌은 연희동 같은 단독-다가구주택이 많은 동네에서 자주 쓰여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치기 쉬운데, 정색하고 감상하면 빛깔과 광택이 매력적임을 알 수 있다. 환원벽돌로 쌓은 벽면은 해질녘에는 자색의 비단처럼 광이 난다. 이 건물의 이름도 그래서 연희공단이다. 이와 비슷한 벽돌이 수십 년 전 지어진 이웃 건물의 여기저기에 사용되어, 이 마을길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세웅, 최연웅은 2013년 건축사무소 아파라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왔다. 건축 환경이 노출되어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에 명료하지만 시적인 제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세웅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200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건축대학 디플롬 과정을 졸업했다. 원형 소재의 건축사무소 알만자틀러바프너 아키텍텐에서 현상설계와 실시설계를 경험했다. <건축평단>의 2019 영아키텍트상과 2021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했다.

최연웅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후 2009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건축대학 디플롬 과정을 졸업했다. 게어버 건축사무소(함부르크), 슈미트 건축사무소(프라이부르크), 볼프 건축사무소(슈투트가르트)에서 다수의 공모전과 실시설계에 참여했다. 2021 인천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며, <건축평단>의 2019 영아키텍트상과 2021 젊은건축가상을 수상했다.

www.apparat-c.com

2021

Young Architect Award Exhibition

Cho Yoonhee,
GUBO Architects
Kang Woohyun
Kang Youngjin,
Archihood W×Y
Lee Sewoong
Choi Yeonyung,
Apparat-c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